

예수와 초기그리스도교의 다양성¹⁾²⁾

민경식*

들어가는 말

오늘날 신약성서에 포함된 문서는 27권이지만, 초기그리스도교 세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종교문서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만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정경에 포함되었으며,³⁾ 대다수의 문서들은 정경의 범위에서 배제되었는데, 이것들을 가리켜 외경이라 한다.⁴⁾ 외경(Apocrypha)은 ‘숨겨진’이란 뜻의 그리스어 형용사 아포크리포스(ἀπόκρυφος)에서 나온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신약학

- 1)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A8023385).
- 2) 이 논문은 2016년 11월 18일(금)에 “사상사와 정전화(正典化)”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사상사학회 정기학술회의에서 “예수의 다양성과 복음서의 정경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밝힌다. 발표된 논문의 분량이 방대하여, 이를 둘로 나누었는데, “예수의 다양성”에 해당하는 첫 부분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여기에 출판한다. “복음서의 정경화”에 해당하는 발표논문의 뒷부분은 “초기그리스도교 복음서들의 정경화와 비정경화”라는 제목으로 「한국사상사학」 2017년 4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 3) 신약성서 정경화(canonization)에 대한 개론적인 안내는 B. M. Metzger,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Its Origin,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xford, Clarendon, 1987), 251-254; L. M. McDonald, *Biblical Canon: Its origin, Transmission, and Authorit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405-420을 보라.
- 4) 정경과 외경의 개념에 대해서는 W. Schneemelcher (ed.),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 Band: Evangelien*, 6. Auflage (Tübingen: J.C.B. Mohr, 1990), 1-7.

단어이며, 따라서 문자적으로 ‘숨겨진 책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초기그리스도교 사회가 산출한 다양하고 방대한 문서들 가운데 주류그리스도교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고, 그 결과 ‘잊혀진’ 책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본 소고는 예수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기 위해 예수의 생애와 활동과 가르침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복음서(들)를 살펴볼 것이다. 신약성서에 포함된 네 권의 정경복음서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정경의 범위에 들지 못한 외경복음서들의 예수에 대한 보도를 관찰함으로써 초기그리스도교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초기그리스도교의 외경 복음서들

초기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잊혀지던 외경복음서들에 대한 증거는 초기사본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제공되며, 또한 초기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의 증언이나 인용문에서 외경복음서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20세기 이후 후대의 필사본들이 상당량 발견되면서 초기그리스도교 문서들에 대한

-
- 5) 초기그리스도교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즉 하나의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를 통제하는 기관이 출현하기 전의 시기인 1세기부터 3세기 후반까지를 가리켜 초기그리스도교라 칭한다.
 - 6) 이 논문에서 주류 그리스도교 공동체라 하는 개념은 4세기 이후 교권을 장악하게 된 주교들 중심의 세력을 가리킨다.
 - 7) 복음서에 대한 정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차적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 E. Bernhard, *Other Early Christian Gospels: A Critical Edition of the Surviving Greek Manuscripts* (London: T & T Clark, 2006), 2. 복음서의 개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도마복음』, 『진리복음』 등 ‘복음’이라는 제목이 붙은 초기그리스도교 문서들 가운데 복음서라 부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또 반대로 『믿음의 지혜』(*Pistis Sophia*)나 『사도들의 기억』(*Memoria Apostolorum*)과 같이 제목에 ‘복음’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복음서에 속하는 문서들이 있기 때문이다. 본 소고에서는 두 부류를 모두 포괄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복음서’ 개념의 사용의 그 역사에 대해서는 H. Koester, *Ancient Christian Gospels: their History and Development* (Harrisburg: Trinity Press, 1990), 1-48.

더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1. 사본의 증거

2-3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사본들은 초기그리스도교 문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원본은 물론 2-3세기의 사본들 대다수가 훼손되거나 소실되었으나, 그럼에도 2-3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경복음서 사본들은 적지 않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정경복음서 사본은 기원후 120-15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요한복음』 사본인 P52 (Papyrus Rylands Greek 457)인데,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파편이다.⁸⁾ 이 밖에도 2-3세기의 사본들에 속하는 정경복음서 사본들은 서른 개 가까이 된다.⁹⁾ 후대의 사본들까지 포함하면, 그리스어로 기록된 정경복음서 사본들은 수천 개에 이른다.

이에 비하면 외경복음서 사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더군다나 2-3세기의 초기외경사본들로 제한하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경복

8) K. Aland /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die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zweite, ergänzte und erweit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97, 109;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68-69.

9) 보수적으로 세어도 3세기 이전의 정경복음서 사본은 약 30개에 달한다. 3/4세기로 평가되는 사본들을 제외하고, 2016년 10월 1일 현재 3세기 이전의 정경복음서 사본으로 추정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P1(P. Oxy. 2), P4(Suppl. Gr. 1120) + P64(Gr. 17) + P67(P. Barc. 1), P5(P. Oxy. 208, 1781), P22(P. Oxy. 1228), P28(P. Oxy. 1596), P39(P. Oxy. 1780), P45(P. Chester Beatty I), P52(Gr. P. 457), P53(Inv. 6652), P66(P. Bodmer II), P69(P. Oxy. 2383), P70(P. Oxy. 2384), P75(P. Bodmer XIV-XV), P77(P. Oxy. 2683, 4405), P80(P. Barc. 83), P90(P. Oxy. 3523), P95(PL. II/3 1), P101(P. Oxy. 4401), P104(P. Oxy. 4404), P106(P. Oxy. 4445), P107(P. Oxy. 4446), P108(P. Oxy. 4447), P109(P. Oxy. 4448), P111(P. Oxy. 4495), P119(P. Oxy. 4803), P121(P. Oxy. 4805), 0220(MS 113).

음서들은 후대의 사본들을 통해 알려진 경우가 많으나, 초기의 단편사본들이 간헐적으로 발견되어 알려진 경우도 있다. 가령, 『에거튼복음』¹⁰⁾이라고 불리는 2세기의 외경은 1935년에 발표된 2세기 말의 단편사본(Pap. Egerton 2)으로 처음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것과 같은 코텍스의 또 다른 조각으로 알려진 단편사본(P. Köln Nr. 255) 하나만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뿐이어서, 적은 분량의 내용만이 알려져 있다.

『야고보원복음』(*Protevangelium Jacobi*)¹¹⁾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19세기에 이미 많은 『야고보원복음』 사본들이 알려져 있었는데,¹²⁾ 1958년에 서야 비로소 현존하는 사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3세기의 사본(P. Bodmer V)이 공개됨으로써 『야고보원복음』의 내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야고보원복음』은 많은 고대번역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¹³⁾ 당시에 동방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복음서가 동방지역에 널리 보급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¹⁴⁾

『도마복음』의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는 콥트어 번역 사본(Codex II. 2)이 1945년 나그함마디(Nag Hammadi)에서 발견됨으로써 전체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으나,¹⁵⁾ 몇 개의 3세기 그리스어 단편사본(P. Oxy. 1, P.

10) 흔히 『미지복음』(*Unknown Gospel*)이라고도 불린다. 이 복음서에 대한 개요적인 설명은 J. Jeremias / W. Schneemelcher, "Papyrus Egerton 2,"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 Band: Evangelien*, 82-85를 보라.

11) 『야고보원복음』은 예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보도이지만, '복음'이라는 제목이 붙은 초기그리스도교 문서이기에 여기에 언급한다.

12) 오늘날 알려진 『야고보원복음』의 그리스어 사본은 140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서는 O. Cullmann, "Kinderheitsevangelien,"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 Band: Evangelien*, 335을 보라.

13) 『야고보원복음』은 시리아어 번역본, 그루지아어 번역본, 라틴어 번역본, 아르메니아어 번역본, 이라비아어 번역본, 콥트어 번역본, 에티오피아어 번역본, 슬라브어 번역본 등으로 전승된다. O. Cullmann, "Kinderheitsevangelien," 335-336을 보라.

14) O. Cullmann, "Kinderheitsevangelien," 336. 서방지역에서는 동방에서만큼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5) H. Koester, "The Gospel of Thomas (II,2)," *The Nag Hammadi Library in English*, ed. by J. M. Robinson, third, completely revised edition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0), 124-138.

Oxy. 654, P. Oxy. 655)으로 이 복음서가 이미 초기에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중반 나그함마디에서 발견된 다량의 그리스도교 문서(Nag Hammadi Library)¹⁶⁾는 외경 연구에 도약판을 마련하였다. 제목만 알고 있던 문서들의 사본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단편사본들을 통해서 일부 내용만 알려졌던 문서들에 대한 완전한 형태의 본문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였다. 또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문서들이 밝혀지기도 함으로써 초기그리스도교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이 밖에도 간헐적으로 새로운 문서들이 소개되기도 하며,¹⁷⁾ 아직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외경 문서들이 새롭게 연구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¹⁸⁾

이뿐만이 아니다. 아직 사본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초기그리스도교 사회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도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통으로 사용한 예수의 어록인 『Q자료』¹⁹⁾리든지, 『요한복음』 저자가 사용한 표적자료나 『마가복음』 저자가 사용한 수난설화,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특수자료 등이 언젠가는 사본의 형태로 발견될 가능성도

- 16) 대표적으로 M. Robinson (ed.), *The Nag Hammadi Library in English*, third, completely revised edition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0)을 보라. 나그함마디 문서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로는 같은 책의 Robinson의 글 “Introduction,” 1-26쪽을 보라. 또한 일레인 페이지스, 『숨겨진 복음서 영지주의』 하연희 옮김 (서울: 루비박스, 2006), 10쪽 이하를 보라.
- 17) 대표적인 것이 『유다복음』이다. 초기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의 언급을 통해서 제목만 알고 있었는데, 20세기 후반(1978년경)에 새로운 사본(차코스사본)이 발견되었고, 2006년 4월에 해독된 본문이 학계에 공개되었다.
- 18) 예를 들면, 2011년에 공개된 P. Oxy. 5072는 2세기말 또는 3세기 초의 파편 조각인데, 아직 알려진 적이 없는 외경복음서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예수는 축귀사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J. Chapa, “P. Oxy. 5072,” *The Oxyrhynchus Papyri*, vol. 76 (London: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 2011)을 보라. 또한 같은 저자의 논문 “A Newly Published ‘Gospel Fragment,’” *Early Christianity* 3 (2012), 381-389를 보라.
- 19) 공관복음의 자료문제, 특히 『Q자료』에 대해서는 C. R. Holladay,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Interpreting the Message and Meaning of Jesus Christ*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47-51을 보라.

있다.

4세기 이후에는 정경복음서들이 잘 보존된 반면, 교권을 장악한 소위 정통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 복음서들을 금서로 지정하고 이것들을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과정을 고려한다면, 남아있는 외경복음서 사본들이 적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당시 그리스도교 문서들의 영향과 분포를 더 명확히 드러내 보이는 자료는 그리스도교 문서에 대한 초기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의 언급이다.

1.2. 초기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의 언급

초기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문서들을 종종 언급하였다. 오늘날 정경에 포함된 문서들뿐 아니라, 외경으로 분류된 문서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에서 당시 유포되던 문서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외경복음서들에 대한 언급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원후 110-130년경에 활동하였던 파피아스(Papias)의 글은 13개의 단편을 통해서 전해진다.²⁰⁾ 유세비우스의 진술에 따르면 파피아스는 “마태가 (예수의) 어록을 히브리어로 편찬하였다”고 하였다(유세비우스, *Historia Ecclesiastica*, III.29.16). 그런데 파피아스가 언급한 “마태복음”은 정경에 포함된 『마태복음』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정경의 『마태복음』은 예수의

20) A. Lindemann / H. Paulsen, *Die Apostolischen Väter: Griechisch-deutsche Parallelausgabe auf der Grundlage der Ausgaben von Franz Xaver / Karl Bihlmeyer und Molly Whitaker* (Tübingen: J.C.B. Mohr, 1992), 286-303을 보라. 파피아스의 유일한 저술(Λογίων κυριακῶν ἐξηγήσεως πέντε βιβλία)은 소실되었으며, 오늘날 초기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의 글에 단편적으로 전해진다. E. Schulz-Flügel, “Papias von Hierapolis,” *Lexikon der Antiken Christlichen Literatur*, 3., vollst. neu bearb. u. erw. Aufl. ed. by S. Döpp / W. Geerlings (Freiburg im Breisgau: Herder, 1998), 545.

어록도 아니고, 또한 히브리어로 기록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문서는 마태의 권위에 의존하는, 또는 마태의 전승을 따르는, 우리에게 전해 지지 않는 외경일 가능성이 높다.

기원후 150년경에 순교자 유스티누스(Justinus)는 『변증』(*Apologia*)에서 예수가 베들레헴 근처 동굴 안에서 태어났다는 전승을 언급하는데(1.33), 이로써 그가 『야고보원복음』(*Protevangelium Jacobi*)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²¹⁾

기원후 2세기의 외경으로 평가되는 『사도들의 편지』(*Epistula Apostolorum*)는 초기그리스도교 저술가의 작품으로 분류되지도 않고, 또한 복음서로도 분류되지 않음에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다. 이 문서에서 외경복음서인 『도마의 예수 유년복음』(*Infancy Gospel of Thomas*)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편지』에 보면, 예수가 어려서 글을 배울 때, 예수를 가르치던 선생이 예수에게 “알과라고 말해 보거라.”라고 하였는데, 예수가 “베타가 무엇인지 먼저 말해보세요.”라고 하였다는 보도가 있다(4(15)).²²⁾ 『도마의 예수 유년복음』 내용(6.3; 14.2)과 같지는 않지만 엇비슷하다.²³⁾ 아마도 『사도들의 편지』의 저자가 『도마의 예수 유년복음』을 알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전승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²⁴⁾

유세비우스의 보도에 따르면, 기원후 2세기 후반에 영지주의 및 마르키온(Marcion)과 치열하게 싸웠던 헤게시푸스(Hegesippus)는 『히브리복음』을 알고 있었으며, 그 복음서를 인용하였다(*Historia Ecclesiastica*, IV.22.8). 같은 단락에서 유세비우스는 헤게시푸스가 시리아어 복음서도 알고 있었다고

21) 물론 독립된 전승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스티누스가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초기그리스도교 문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변하지 않는다.

22) 『사도들의 편지』의 전체 본문은 W. Schneemelcher (ed.),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 Band: Evangelien*, 207-233쪽을 보라.

23) 『도마의 예수 유년복음』의 전체 본문은 W. Schneemelcher (ed.),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 Band: Evangelien*, 353-361쪽을 보라.

24)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도마의 예수 유년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레네우스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증언하는데(*Historia Ecclesiastica*, IV.22.8), 아마도 시리아어 방언인 아람어로 기록된 복음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복음서인지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어쨌거나 유세비우스의 보도를 통해서 2세기 후반의 헤게시푸스가 외경복음서들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거룩한 문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기원후 170년경, 타티아누스(Tatianus)는 정경의 네 복음서를 종합하여 하나의 복음서 『디아테사론』(*Diatessaron*)을 만들었다. 디아테사론이 정경복음서들의 내용과 다소 다른 보도를 한다는 것에서 타티아누스가 정경복음서들뿐 아니라 외경복음서들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²⁵⁾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도마복음』인데,²⁶⁾ 이로써 타티아누스는 외경들, 특별히 『도마복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기원후 180년경, 이레네우스(Irenaeus)는 『이단을 반박함』(*Adversus Haereses*)에서 몇몇 외경복음서들을 언급하고 있다. 에비온파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마태복음”만을 본다고 하였는데(I.26.2; III.11.7), 여기서 언급된 “마태복음”은 정경의 『마태복음』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에비온파가 보는 복음서, 즉 그들의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보도가 없기 때문이다(III.21.1; V.1.3). 아마도 이 복음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비온복음』일 개연성이 높다. 또한 가인파라는 이단종파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날조된 문서인 『유다복음』을 본다고

25) 아마도 기원후 172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W. L. Petersen, “The Diatessaron of Tati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ed. by E. J. Epp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5) 91.

26) 최근 『도마복음』과 『디아테사론』의 관계를 연구한 페린(N. Perrin)은 『도마복음』이 『디아테사론』을 자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Thomas and Tati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spel of Thomas and the Diatessaron* (Leiden: Brill, 2002). 그러나 『도마복음』이 기원후 1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디아테사론』이 『도마복음』을 인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페린의 주장처럼 『디아테사론』이 『도마복음』의 주요자료였다 하더라도 2세기에 『도마복음』 전승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비판하였다(*Adversus haereses*, I.31.1). 또 발렌티누스와 영지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문서로 『진리복음』(*Gospel of Truth*)을 언급한다(III.11.9). 이 밖에도 이레네우스는 『도마의 예수 유년복음』을 언급하기도 한다(*Adversus Haereses*, I.13.1).

기원후 200년경 활동하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s)는 『스트로마타』(*Stromata*)에서 『히브리인복음』(II.9.45; IV.14.96)과 『이집트복음』을 언급한다(III.9.61; III.13.92). 또한 『맛디아복음』(*Gospel of Matthias*)도 언급한다(III.4). 이 밖에도 클레멘스는 『마가의 비밀복음』(*Secret Gospel of Mark*)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⁷⁾

유세비우스의 보도에 따르면, 기원후 200년경, 안디옥의 주교였던 세라피온(Serapion)은 『베드로복음』의 잘못된 사상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Historia Ecclesiastica*, VI.12.1-6). 이로써 세라피온이 『베드로복음』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이 복음서를 배척하였다고 할 수 있다.

3세기 초에 활동하였던 오리게네스(Origenes)는 『마태복음주석』에서 『베드로복음』과 『야고보의 책』을 언급하는데(X.17), 『야고보의 책』은 아마도 『야고보원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²⁸⁾ 또 『요한복음주석』에서는 성령이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를 잡고 자기를 높은 산으로 옮기었다는 『히브리복음』의 보도(II.12; XV.4)를 인용한다. 또한 『누가복음주석』에서는 1장 1절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이집트복음』과 『열두사도복음』과 『바실리데스복음』과 『도마복음』과 『맛디아복음』을 언급하며, 이 밖에도 여러 복음서를 알고 있다고 증언한다.²⁹⁾

27)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마가의 비밀복음』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M. Smith, *Clement of Alexandria and a Secret Gospel of Mark*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을 보라. 간략한 설명으로는 H. Merkel, "Anhang: Das 'geheime Evangelium' nach Markus,"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 Band: Evangelien*, 89-92쪽을 보라.

28) B. D. Ehrman / Z. Pleše (eds.), *The Other Gospels: Accounts of Jesus from Outside the New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19. 『야고보의 책』에 대한 오리겐의 증언과 『야고보원복음』의 핵심주제가 같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2-3세기의 많은 초기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다양한 그리스도교 문서들을 언급하는데, 많은 경우가 오늘날 정경에 포함된 것들이지만, 또 적지 않은 문서들은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것들이다. 초기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의 외경에 대한 언급을 볼 때, 외경복음서들에 대한 증거는 정경복음서들에 대한 증거에 필적하며, 당시에 정경과 외경의 구분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³⁰⁾ 정경과 외경의 실질적인 구분과 차별화는 4세기 제국의 공인을 받은 그리스도교공교회의 확립과 그 이후의 신약성서 정경화의 마무리를 전제로 한다.

오늘날과는 달리, 기원후 3세기까지의 초기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외경들은 익히 잘 알려진 문헌들이었으며, 분파마다 각기 다른 복음서들을 권위 있는 문서로 보고 있었다. 초기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초기그리스도교 사회에서 다양한 복음서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으며, 이는 초기그리스도교 사회의 다양한 신학적 전망과 다양한 분파들의 경쟁과 갈등을 시사한다.

2. 예수의 다양한 초상

초기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예수는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최종적으로 정경에 포함된 복음서들이 보도하는 예수의 모습도 결코 일관적이지 않다. 그런데 그 범위를 초기그리스도교 문서들 전체로 확장시키면, 예수의 초상은 다양할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상반되기도 한다.

29) 『누가복음주석』의 해당 본문은 W. Schneemelcher (ed.),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 Band: Evangelien*, 37쪽을 보라.

30) H. Koester, "Apocryphal and Canonical Gospels," *Harvard Theological Review* 73 (1980), 108-110.

2.1. 정경복음서들의 예수

신약정경에는 네 권의 복음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각각의 복음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한다.³¹⁾ 각 복음서를 산출한 공동체마다 그 처한 문화적, 사회적 정황이라든지 신학적 사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다를 수밖에 없었다.³²⁾

2.1.1. 『마가복음』의 예수

『마가복음』의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축귀자이자 기적수행자로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마가의 예수에 대한 가장 지배적인 전망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³³⁾이다. 그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막 8:31)하는 존재이다.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막 8:34) 따라야 한다.

마가의 예수는 무력하게 체포되어(막 8:43-50), 온갖 모욕을 받으며(막 15:16-20),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린다(막 15:21-32).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막 14:50),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한다

31) 신약성서에 포함된 네 복음서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초기그리스도교 사회의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해 네 복음서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 개론적인 수준에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32) 학술서는 아니지만, 네 복음서의 예수의 특징을 가장 잘 소개하는 책은 서중석, 『예수』(서울: 동아출판사, 1992)이다. 서중석에 따르면, 예수에 대한 『마가복음』의 지배적인 전망은 “수난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는 『마태복음』이 “권위 있게 가르치는 교사”로 예수를 묘사한다고 주장한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나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요한복음』은 “육신이 된 영광의 주”로서의 예수를 부각시킨다고 한다. 학술서로는 서중석, 『복음서해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을 보라. 이 밖에도 루돌프 슈낙켄부르크,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김병학 옮김 (경북: 분도출판사, 2009), 475-491을 보라.

33) 서중석, 『연세신학백주년 성경주석: 마가복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4.

(14:66-72). 이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의 양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옹호하며 자비를 구하는 죄인에 대한 보도(눅 23:39-43)가 『마가복음』에는 없으며, 오히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막 15:20)고 보도될 뿐이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는 동고동락하였던 열두 제자 가운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온갖 고난을 철저히 홀로 담당해야 하며, 또한 정치 없이 길 위를 떠돌아다녀야 했던 마가의 예수는 정착할 곳조차 없이 떠돌아다녔던 가난한 순례공동체³⁴⁾로서의 마가공동체의 자기이해를 반영한다.

2.1.2. 『마태복음』의 예수

『마태복음』의 예수에 대한 지배적인 전망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는 위대한 스승이다.³⁵⁾ 모세유형론에 따라 구성된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라이벌로 모세가 등장한다. 모세가 바로의 대학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남았듯이(출 1:15-2:10), 예수도 헤롯대왕의 유아학살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으며(마 2:13-18),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와서 이스라엘에 주었듯이(출 24:12), 예수는 산 위에서 백성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베푼다(산상수훈, 마 5:1-7:29). 그러나 예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스승으로 묘사된다. 여섯 개의 반명제 단락(5:21-48)에서 예수는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표현을 여섯 번 반복하는데, 이로써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가르침을 주는 예수의 모습이 부각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는다(마 2:1;12). 동쪽은 지혜의 근원이며, 박사는 문자적으로는 점성술사를 의미하나, 그는 하늘을 관찰함으로써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고, 신탁을 받는 사람이며, 세상의 온갖 지혜를 검비한 현자이다.³⁶⁾ 이들의 경배를 받은 마태

34) 서중석, “예수의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마가공동체,” 『신약논단』 29 (2001), 97-116.

35) 민경식, 『연세신학백주년 성경주석: 마태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6-17.

의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스승이 될 운명이었다.

유대교적 배경을 중요시하는 마태의 예수는 상대적으로 율법을 존중한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마 5:17). 유대적 배경에서 기록된 『마태복음』은 예수를 “더욱 강하게 구약의 실현자로 보았으며, 그분(예수)의 모습과 복음 선포, 특히 윤리적 가르침을 구약성경과 유대교(유대교)를 배경으로 서술”³⁷⁾하였다.

2.1.3. 『누가복음』의 예수

『누가복음』의 예수의 지배적인 전망은 죄인마저 사랑하는 인자한 구원자이다. 예수를 체포하려고 무리가 들이닥쳤을 때, 예수의 추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지키기 위해 칼을 썼는데, 그만 대제사장의 귀가 잘려 땅에 떨어졌고, 이에 예수는 그 사람의 귀를 만져 고쳐주었다(눅 22:47-51). 누가의 예수는 적대자마저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눅 23:34)라고 한다.

또한 누가의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나서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마태복음』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마 18:12-14)가 제자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누가복음』의 ‘잃어버렸다 되찾은 양의 비유’(눅 15:1-7)는 죄인이 회개할 때의 기쁨을 노래한다. 이어 『누가복음』에만 보도되는 ‘잃어버렸다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눅 15:1-8-10)나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잃어버렸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15:11-32) 역시 비슷한 주제를 드러낸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도 바로 옆에 달린 죄인의 회개를 기뻐한다(눅

36) 동방과 ‘박사’에 대하여는 R. E. 브라운, 『메시아의 탄생』, 이옥용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263-269를 보라.

37) 슈낙켄부르크,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476.

23:39-43).

누가의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드러낸다. 예수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경배하는 사람들은 당시 안식일도 지킬 수 없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목자들이었다. 천대받는 하층민들이 가장 먼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며(눅 2:8-20), 예수의 사역 역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눅 4:16-19). 마태가 율법을 중요시했다면, 누가는 성령을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예수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른다(눅 4:14, 18; 10:21 등. 또한 행 2:33 참조). 또한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헬라계 작가 루카(누가)는 ... 그리스인의 사고와 정서와 소망에 부합하는 예수 모습을 그려 냈다.”³⁸⁾ 『누가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독자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도 『마태복음』과는 달리 아브라함을 지나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이른다(눅 3:23-37).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모세는 『누가복음』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누가의 예수는 로마황제와 대결한다. 로마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진정한 왕이다.

2.1.4. 『요한복음』의 예수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증언된다(요 1:1).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요 1:1),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신적 존재이다(요 1:2-3). 바로 그 신적 존재가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영지주의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요한복음』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물질이 결코 부정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신적 존재가 물질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1:14).

공관복음서의 예수와는 달리 요한의 예수는 모든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

38) 슈낙켄부르크,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477.

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심지어는 체포당하는 장면에서도 예수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요 18:4) 스스로를 잡아가도록 한다(18:4-11). 전지전능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니 『요한복음』에는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이 설 자리가 없다.

요한의 예수는 갈등하지도 않으며, 갯세마네에서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왜 자신을 버렸냐고 외치지 않는다. 오히려 “다 이루었다.”하고 말하고 장엄하게 숨을 거둔다. 따라서 그 죽음은 패배나 실패, 또는 고통과 비참함의 죽음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시작을 알리는 승리의 외침이다.³⁹⁾ 요한의 “예수는 ...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오신 사람의 아들, ...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⁴⁰⁾ 공관복음 전통과는 달리, 요한의 예수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유월절 준비일에 숨을 거둔다(요 19:31).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각에 예수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제물들과 함께 피를 흘리며 죽는다.

2.2. 외경복음서들의 예수

2.2.1. 영지주의 복음서들

기원후 20세기 초까지 초기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의 언급을 통해서 영지주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20세기 중반에 이집트의 나그함마디(Nag Hammadi)에서 영지주의 문서들이 다량으로 발견되면서 초기그리스도교 영지주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대폭 확장되었다.

물론 초기그리스도교 내의 영지주의 분파들이 통일된 사상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은 있다. 물질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39) R. E. 브라운, 『요한복음 II: 영광의 책』, 최홍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1734-1735.

40) 슈낙켄부르크,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477.

세계관을 배경으로 창조주(조물주)인 구약의 신을 열등한 또는 사악한 신으로 여긴다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신비한 영지(그노시스)를 깨달음으로써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상을 예로 들 수 있다. 특별히 예수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서는 ‘가현설’(docetism)을 주장한다.⁴¹⁾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렇게 때문에 예수는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증언되기도 한다.⁴²⁾

『진리복음』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지주의 문서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질을 악으로 규정하는 영지주의 체계 안에서는 육체적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감옥으로서의 육체를 벗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비록 ‘복음서’라는 제목이 붙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담화를 담고 있는 『위대한 셋의 두 번째 논고』(*Second Treatise of the Great Seth*)에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예수는 “나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55.18-19)이라고 말한다. 그 대신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죽었다(59.9-11). 영주주의의 가현설적 그리스도론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빌립복음』 역시 비슷하게 보도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그곳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72) 여기서 “분리”는 신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와 육체적 존재로서의 예수가 갈라졌음을 의미하며, 결국 십자가에

41) F. L. Cross / E. A. Livingstone (edd.), “Docetism,”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Third Edition Revis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496.

42) 『빌립복음』은 예수가 여러 형상으로, 즉 “큰 사람(어른)에게는 큰 사람(어른)으로, 작은 사람(어린이)에게는 작은 사람(어린이)으로”(26a) 나타났다고 증언한다. 복음서는 아니지만, 『베드로행전』과 『요한행전』에서도 예수는 다양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도된다. 때로는 노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젊은이의 모습, 또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베드로행전』 21장), 때로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때로는 잘 생긴 사람으로, 또 때로는 수염 기른 대머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요한행전』 88-89장).

달려 죽은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예수임을 드러낸다.

제목에 ‘복음’이 붙은 기원후 2세기 중반의 『진리복음』은 엄격한 의미에서 복음서 장르에 속하지는 않지만,⁴³⁾ 예수에 대해 보도하며, 독특한 전망을 제시한다. 영지주의 체계로서는 낯설게도 『진리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보도하나, 이로써 그가 하나님을 이는 지식의 열매가 되었다고 보도한다는 점(I.18.24-I.18.26)에서 여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인 영지를 강조하는 영지주의 체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리복음』의 예수는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계시자이며, 진리의 길을 가르친 스승이다(I.18.11-I.18.21).

2세기 중반의 『유다복음』에서는 예수가 환시 또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33.18-21), 그리스도를 옷처럼 뒤집어쓰고 있는 예수는 참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묘사된다(56.20). 전형적으로 영지주의적 기현설을 드러낸다.⁴⁴⁾

반면 비밀스러운 신비한 가르침을 깨달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도마복음』은 분명 영지주의 문서지만⁴⁵⁾ 가현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도마복음』에서 예수는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다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영지주의 체계 안에서 육체적 부활이 설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지주의 안에도 다양한 분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으며, 이들

43) J. M. Robinson (ed.), *The Nag Hammadi Library in English*, third, completely revised edition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0), 38. 나그함마디에서 발견된 사본의 맨 앞에 ‘진리복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은 설교(homily)이다.

44) 민경식, “『유다복음』의 예수와 유다공동체의 자기이해: 예수의 웃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3 (2017), 103-105, 108을 보라. 다른 영지주의 복음서들과 차별화되는 『유다복음』의 특징은, 예수로부터 영지를 부여받는 모범적 제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다복음』에서 열두 제자는 악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다는 열두 제자보다 더 사악한 인물(“열세 번째 악령”)로 묘사된다.

45) 114개의 예수의 어록을 묶은 『도마복음』은 『Q문서』와 같은 예수의 어록집이기에 엄격한 의미에서 복음서라고 부르기엔 적절하지는 않다. 그러나 『진리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본 소고에서 함께 취급한다.

은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두고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그리스도교의 주류 공동체와도 경쟁하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2.2.2. 유대주의 복음서들

유대주의는 영지주의와는 정반대의 그리스도론을 주장하는데, 유대주의에 속하는 대표적인 복음서들은 『나사렛복음』(*Gospel of the Nazarenes*)과 『에비온복음』(*Gospel of the Ebionites*)과 『히브리복음』(*Gospel of the Hebrews*)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서들이 몇몇 초기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의 작품에서만 언급되거나 인용될 뿐, 이들 복음서의 일차자료들이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초기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이 이 복음서들을 인용하면서 밝힌 출처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면, 히에로니무스(Hieronymus)는 『나사렛복음』을 『히브리복음』이라고 불렀으며(『마태복음주석』, 6장 11절), 에피파니우스(Epiphanius)는 『에비온복음』을 『히브리복음』이라고 불렀다(*Adversus Haereses*, 30.13.2f). 그래서 이 세 복음서들이 하나의 복음서 또는 두 개의 복음서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대로 이것들을 세 개의 독립적인 복음서로 구분은 하되,⁴⁶⁾ 함께 취급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유대주의 그리스도교의 특징이라면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들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서 유대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강조하는 ‘양자설’(adoptionism)을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신적 권능을 부여 받은 인간이라는 이해이다.⁴⁷⁾ 예수는 원래 육체를 지닌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어느 순간(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46) 전통적으로 세 복음서는 구분된다. 각각의 구분 및 각 복음서의 본문, 또 단락번호는 P. Vielhauer / G. Strecker, “Judenchristliche Evangelien,”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 Band: Evangelien*, 115-147을 보라.

47) F. L. Cross / E. A. Livingstone (edd.), “Adoptionism,”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20.

아들로 선택되었다는 그리스도론이다.

『에비온복음』은 예수의 세례 장면을 정경의 복음서들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한다. 에피파니우스가 『에비온복음』을 인용한 본문을 보면,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그는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기뻐한다.’ 그리고 또 한 번 소리가 들렸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바로 큰 빛이 그곳을 비추었다”(Epiphanius, *Adversus Haereses*, 30.13.7f). 이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양자설이다. 190년경 비잔틴의 테오도투스(Theodotus)가 이러한 그리스도론을 주창하였으며(Hippolytus, *Philosophumena*, VII.23), 5세기의 네스토리우스(Nestorius)가 이어받았다.⁴⁸⁾ 이러한 유대주의는 초기그리스도교 사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영지주의뿐 아니라 주교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공동체 등 다른 분파들과 경쟁하고 있었다.

2.2.3. 유년시절 복음서들

정경복음서들에서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짧게 보도된다(눅 2:41-52). 열두 살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랍비들과 토론한 일화에 대한 누가의 보도는 예수의 총명함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밖에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정경복음서들은 침묵한다. 그러나 초기그리스도교 세계에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유포되어 있었다.

『도마의 예수 유년복음』(*Infancy Gospel of Thomas*)이 대표적인데, 이 복음서는 예수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증언한다.

48) 네스토리우스는 인간 예수와 신성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철저히 구분하였다. F. L. Cross / E. A. Livingstone (edd.), “Nestoriu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1145.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다섯 살 예수가 진흙으로 참새를 열두 마리 만들어 날려 보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2.1-5). 뱀에 물려 죽어가는 야고보를 고쳤고(16.1-2),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이기도 하였다(11.1-2; 12.1; 13.1-2 등).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무를 하는 청년의 발이 도끼에 잘려 출혈이 심해서 죽었는데 소년 예수가 그를 살려냈다(10.1-2. 또한 9.1-3; 17.1-2; 18.1). 뿐만 아니라 소년 예수는 위대한 지혜를 갖춘 것으로 보도된다(6-8장; 14장, 15장, 19장). 그러나 소년 예수는 또한 악동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같이 놀던 아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였으며(3.1-3), 모르고 부딪힌 아이를 저주하여 죽이기도 하였다(4.1). 또 이 일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여 그들이 맹인이 되었다(5.1). 이처럼 『도마의 예수 유년복음』은 예수의 신적 능력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문서들에도 단편적으로 보도된다.⁴⁹⁾

2.2.4. 그 밖의 복음서들

이 밖에도 초기그리스도교 세계에는 정경의 복음서들과 크게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복음서들도 많이 있었다. 『마가복음』의 확대된 버전으로, 『요한복음』에만 보도되고 정경의 『마가복음』에 보도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마가의 비밀복음』(*Secret Gospel of Mark*)에 포함되어 있다.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요 11:38-44)라든지, 니고테모와의 대화(요 3:1-21)가 변형된 형태로 보도된다.

단편으로만 전해지는 『에거튼복음』(*Egerton Gospel*)에는 네 가지 이야기

49) 주로 후대에 기록된 문서들인데, 6세기의 『시리아 예수 유년복음』(*Syriac Infancy Gospel*)의 마지막 부분은 『도마의 예수 유년복음』을 토대로 예수의 신비한 능력을 묘사한다. 그러나 이 문서는 초기그리스도교에 관심을 갖는 소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 7세기의 『위(僞)마태복음』(*Gospel of Pseudo-Matthew*)도 마찬가지로이다.

가 포함되어 있는데, 율법학자와의 논쟁(요 5:39-47; 10:31-39)과 유사한 이야기가 보도되며, 나병환자를 고치는 이야기(마 8:1-4; 막 1:40-45; 눅 5:12-16; 17:11-14)가 정경복음서들과 다소 다른 형태로 보도된다. 또한 세금납부에 대한 이야기(마 22:15-22, 막 12:13-17, 눅 20:20-26)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요르단에서 씨를 뿌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는 정경의 어느 복음서에도 보도되지 않는 내용이다. 『에거튼복음』이 단편적인 예수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⁵⁰⁾

『베드로복음』은 정경복음서들보다 더 자세하게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과 부활과 현현에 대해 보도한다. 파편사본들을 제외하면 유일한 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로사본(P. Cair. 10759)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공생애와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복음』에 어느 정도 더 포함되어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점은, 첫째, 200년경 안디옥의 주교 세라피온(Serapion)의 설명과는 달리, 『베드로복음』이 영지주의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과 둘째, 이 복음서가 반유대적 관점에서 공관복음서의 예수 수난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⁵¹⁾

마태복음을 빼대로 그 밖의 정경복음서들과 일부 외경복음서들의 보도를 엮어서 하나의 복음서가 된 『디아테사론』(*Diatessaron*)에는 예수의 족보와 승천에 대한 보도가 없다.⁵²⁾ 그러나 영지주의적 또는 유대주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의 유대주의적 색채가 얼어지기는 하나, 반율법주의적이지도 않다.⁵³⁾

50)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H. Koester, "Apocryphal and Canonical Gospels," 122-123을 보라. 본 소고는 개별 정경 및 외경복음서들의 의존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 다만 정경의 복음서들이 사용한 전승과 『에거튼복음』이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51) 2017년 3월 「신약논단」에 출판 예정인 민경식, "『베드로복음』의 예수 이야기"를 보라.

52) W. L. Petersen, "Tatian's Diatessaron," H. Koester, *Ancient Christian Gospels: their History and Development*, 430.

53) W. L. Petersen, "Tatian's Diatessaron," 430.

나가는 말

초기그리스도교 사회의 많은 공동체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복음서를 산출하였으며, 그들의 복음서는 저마다 보도하는 내용과 예수에 대한 전망에서 독특한 점을 지니고 있었다. 신약성서의 복음서들에서 예수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각된다. 오늘날에도 개신교, 로마가톨릭, 정교회(러시아, 그리스, 콥트, 에티오피아 등) 등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며, 예수에 대하여 각기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 개신교 안에도 수많은 교단이 공존하며, 같은 교단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또다시 서로 다른 예수 이해를 드러낸다.

초기그리스도교 사회의 예수상(像)은 오늘날보다 더 다양하였다. 각 복음서를 산출한 공동체들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전망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외경으로까지 확장시키면, 예수에 대한 전망은 훨씬 더 다양해진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려다 신성을 부정한다거나, 반대로 신성을 강조하려다 인성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다. 정경복음서들이 관심을 갖지 못한 예수의 유년 및 소년시절에 대해 보도하는 복음서들도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 이것들은 예수의 아동기 자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가 어려서부터 초인간적 또는 신적 능력을 지녔음을 증언하려는 시도였다. 이처럼 다양한 복음서들은 정통과 이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초기그리스도교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초기그리스도교 사회는 또한 역동적이었다. 서로 다른 분파들이 공존하며, 때로는 갈등하기도, 때로는 경쟁하기도, 또 때로는 연합하는 과정을 거치며 주류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주류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선호한 복음서들은 결국 4-5세기 이후에 초기그리스도교 공교회의 정경에 최종적으로 편입되었으나,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배척된 공동체들의 복음서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차츰 잊혀졌다.⁵⁴⁾

54) 복음서들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는 2017년 4월에 「한국사상사학」에 출판 예정인 민경식,

<주제어>

초기그리스도교, 신약정경, 신약외경, 예수, 복음서

<Key words>

Early Christianity, New Testament Canon, Apocrypha, Jesus, Gospel.

* 접수일 2017년 3월 7일, 수정일 2017년 3월 29일, 게재 확정일 2017년 4월 6일

“초기그리스도교 복음서들의 정경화와 비정경화”(미출판)를 보라.

참고문헌

-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_____, 『연세신학백주년 성경주석: 마태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_____, “『유다복음』의 예수와 유다공동체의 자기이해: 예수의 웃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3 (2017), 91-115.
- _____, “『베드로복음』의 예수 이야기,” 『신약논단』 24 (2017년 3월 출판 예정)
- _____, “초기그리스도교 복음서들의 정경화와 비정경화”(2017년 4월 『한국사상사학』에 출판 예정)
- 브라운, R. E., 『요한복음 II: 영광의 책』, 최흥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 브라운, R. E., 『메시아의 탄생』, 이옥용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 서중석, 『복음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_____, 『예수』, 서울: 동아출판사, 1992.
- _____, “예수의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마가공동체,” 『신학논단』 29 (2001), 97-116.
- _____, 『연세신학백주년 성경주석: 마가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슈낙켄부르크, R.,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김병학 옮김, 경북: 분도출판사, 2009.
- 페이절스, E., 『숨겨진 복음서 영지주의』, 하연희 옮김, 서울: 루비박스, 2006.
- Aland K. / Aland, B.,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die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zweite, ergänzte und erweit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 Bernhard, A. E., *Other Early Christian Gospels: A Critical Edition of the*

- Surviving Greek Manuscripts*, London: T & T Clark, 2006.
- Chapa, J., "P. Oxy. 5072," *The Oxyrhynchus Papyri*, Vol. 76. London: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 2011.
- _____, "A Newly Published 'Gospel Fragment'," *Early Christianity* 3 (2012), 381-389.
- Cross, F. L. / Livingstone, E. A. (ed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Third Edition Revis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Cullmann, O., "Kinderheitsevangelien,"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 Band: Evangelien*. 6, Auflage, Tübingen: J.C.B. Mohr, 1990, 330-372.
- Ehrman, B. D. / Pleše, Z. (eds.), *The Other Gospels: Accounts of Jesus from Outside the New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Holladay, C. R.,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Interpreting the Message and Meaning of Jesus Christ*,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 Jeremias, J. / Schneemelcher, W., "Papyrus Egerton 2."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 Band: Evangelien*, 6, Auflage, Tübingen: J.C.B. Mohr, 1990, 82-85.
- Koester, H., "Apocryphal and Canonical Gospels," *Harvard Theological Review* 73 (1980), 105-130.
- _____, "The Gospel of Thomas (II,2)," *The Nag Hammadi Library in English*, Ed. by J. M. Robinson, 3rd completely revised edition,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0, 124-138.
- _____, *Ancient Christian Gospels: their History and Development*, Harrisburg: Trinity Tress, 1990.
- Lindemann A. / Paulsen, H., *Die Apostolischen Väter: Griechisch-deutsche Parallelausgabe auf der Grundlage der Ausgaben von Franz Xaver / Karl Bihlmeyer und Molly Whittaker*, Tübingen: J.C.B. Mohr, 1992.

- McDonald, L. M., *Biblical Canon: Its origin, Transmission, and Authorit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 Merkel, H., “Anhang: Das ‘geheime Evangelium’ nach Markus.”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 Band: Evangelien*, 6. Auflage, Tübingen: J.C.B. Mohr, 1990, 89-92.
- Metzger, B. M.,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Its Origin,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xford, Clarendon, 1987.
- Perrin, N., *Thomas and Tati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spel of Thomas and the Diatessaron*, Leiden: Brill, 2002.
- Petersen, W. L., “Tatian’s Diatessaron,” Koester, *Ancient Christian Gospels: their History and Development*, Harrisburg: Trinity Tress, 1990, 403-430.
- _____, Petersen, W. L., “The Diatessaron of Tati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Ed. by E. J. Epp,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5, 77-96.
- Robinson, M. et. al. (eds.), *The Nag Hammadi Library in English*, Third, Completely Revised Edition,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0.
- Schneemelcher, W. (ed.),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 Band: Evangelien*, 6. Auflage, Tübingen: J.C.B. Mohr, 1990.
- Schulz-Flügel, E., “Papias von Hierapolis,” *Lexikon der Antiken Christlichen Literatur*, 3. vollst. neu bearb. u. erw. Aufl. Ed. by S. Döpp / W. Geerlings, Freiburg im Breisgau: Herder, 1998, 545.
- Smith, M., *Clement of Alexandria and a Secret Gospel of Mark*,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Vielhauer P. / Strecker, G., “Judenchristliche Evangelien,”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 Band: Evangelien*, 6. Auflage, Tübingen: J.C.B. Mohr, 1990, 114-147.

<초록>

예수와 초기그리스도교의 다양성

민경식

(연세대학교)

이 논문의 목적은 초기그리스도교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연구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초기그리스도교의 정경복음서들뿐 아니라 외경복음서들을 다룰 것이며, 이 문헌들에 반영된 예수의 전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각 복음서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묘사하는 방식은 독특하다. 정경복음서들이 서로 차이를 드러내며, 외경복음서들은 더 다양한 예수의 모습을 보도한다. 예수에 대한 다양한 이해는 초기그리스도교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초기그리스도교의 다양한 분파들은 경쟁하며, 갈등하거나 투쟁하였다. 또한 때로는 서로 연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경쟁 속에서 승리한 분파들의 문서들은 정경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패배한 분파의 문서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abstract>

Diversity of Portraits of Jesus and Dynamics of Early Christianity

Prof. Kyoung-Shik Mi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diversity and dynamics of the early Christianity. For this purpose, it will survey various perspectives on Jesus reflected in the canonical and non-canonical Gospels produced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The early Christian Gospels are attested by early manuscripts and also by the citations of early Christian writers. Some non-canonical Gospels which were rejected by certain Christian writers were accepted by others. The distinction between canonical and non-canonical Gospels was not settled yet.

Each Gospel portrays Jesus in its own, and sometimes in a unique way. The *Gospel of Matthew* views Jesus as a teacher who gives more authoritative laws (teachings) than those of Moses. The *Gospel of Mark* portrays Jesus as the Son of God who suffers alone. In the *Gospel of Luke* Jesus appears as the Savior who seeks the lost, and in the *Gospel of John* Jesus is the glorious God who became a human being with flesh and blood.

When non-canonical Gospels are included, the images of Jesus become more variable. According to the Gnostic writings, Jesus is not the real Christ. They deny the reality of fleshly existence of divine Christ. On the contrary, Jewish-Christian writings view Jesus as a real flesh and blood human being who

was adopted by God to be his Son. These gnostic and Jewish-Christian writings were eventually excluded from the Christian canon.

There were still some other Gospels which eventually failed to be included in the Christian canon, even they were neither gnostic nor Jewish-Christian. Infancy Gospels tell about the miraculous stories of Jesus's childhood. *Diatessaron*, a harmony Gospel, combines all the materials found in the canonical Gospels and made a single story of Jesus. The *Gospel of Peter* is an expanded passion narrative of Jesus which shows stronger anti-Semitism than the canonicals.

The early Christian Gospels reflect many "Christianities"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There were competitions, conflicts, and even battles, and sometimes union between them. While the Gospels of the bishop-centered mainstream Christianity were eventually incorporated into a sacred and authoritative collection (the New Testament), the writings of the communities which were defeated in the struggle for existence were faded out from the stage of Christian history.

